



한국어촌어항협회 2014년도 정기총회 성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업기반을 선도하는 어업인의 파트너”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고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올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업기반을 선도하는 어업인의 파트너’ 라는 미션아래 경영목표 463억 원 규모의 수지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어항의 안전성 제고 및 부가기능활성화 △어항의 친환경 지속성장 확보 △신 어촌문화 창달 △선진적 경영 인프라 구축 등 4개 목표도 설정했다.

올해 협회의 사업계획 특징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항의 안전관리 및 부가기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였고 지출면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박준영 어촌양식정책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그동안 협회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어항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강화하였고, 효율적인 어항·어장정화를 통하여 환경회복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치하하고 “앞으로 협회가 어업인과 관련기관·단체, 업계 사이에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라며 정부시책인 공공기관

정상화도 적극 부응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어업인들에게는 어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어항과 어장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인들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라고 강조했다.

2014년도 정기총회 의결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 - 원안 가결

- 개정이유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13.6.5.)에 맞추어 협회 정관을 정비
- 주요내용 :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와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요구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상임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

□ 제2호 :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이사장 추천안 가결

- 제안이유 : 협회 임원 중 비상임이사 4명의 임기가 2014. 3. 29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임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진열, 김형인, 안희도, 이재완 이사 1년간 연임 (임기 : ’14. 3. 30 ~ ’15. 3. 29)